만경강 마구잡이 공사 '몸살'

설계에 공사 불법 진행… 익산국도관리청 관리 · 감독소홀 '도마 위'

완주군 만경강(고산천)이 마구잡이식 불법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익산국도관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익산국도관리청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주(총 공사비 110억)해, (주) S L건설, (주) S K 건설, (주) S 토건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허가받은 곳이 아닌 현장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해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곳 현장(사진)은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하천을 마구잡이식 공사로 파헤치고 있는 실정.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장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유출로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완주군 한 환경 전문가는 "불법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곳는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하천에 살고 있는 어·패류에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만경강을 살리기 위해 완주군이나 환경단체들이 해마다 종폐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완주군 만경강(고산천)이 마구잡이식 불법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한분 요청으로 설계에도 없는 공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은 불법행위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봉동읍 이(44)모씨는 "이렇게 불법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은 무엇을 하는 모르겠다"며 "공복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익산국도관리청관계자는 "현장 파악 후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군, 전통시장 4곳 소방 안전시설 점검

가스 · 전기 ·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상… 읍면 자체적으로 봄맞이 대청소 실시

무주군이 전통시장 자체안전점검에 나섰다.

무주군 관내에는 무주읍 반딧불장터와 설천면 삼도봉장터, 안성면 덕유산장터, 무풍면 대덕산장터 등 4곳이 있으며 무주군은 24일까지 이들 시장에서 가스(용기, 계량기, 배관, 가스누출여부, 보일러 및 온수시설, 가스용품, 안전장치 등)와 전기(변압기, 차단기, 접지, 배선, 비상발전기 등), 소화기와 자동 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등의 소방분야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관리상태 등도 점검해 전통시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사람들이 직접 안전 포인트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매월 1회) 운영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허준철 산업행정담당은 "무주군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도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사건도 잇따라 화재로부터 관내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장상인들 모두가 한마음이돼서 지역경제의 심장 전통시장을 지키고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시장 대부분이 현대화사업 종료 후 15년이 지나는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무주군은 시장 시설물 안전과 위생과 청결 확보를 위해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24일까지는 각 읍면 자체적으로 시장 장옥과 공용시설물,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진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관내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현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지도 점검에 나선다.

군은 특별점검반 2개조 4명을 편성하여 관내 레미콘 제조업체, 면적 1만㎡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지도·점검표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사업장 주변 환경정리사항 등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6건 선정

진안군은 20일 상반기 규제개혁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일까지 15일간 군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규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공무원 규제개혁 제안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71건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실무부서 검토 후 최종 선정된 16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6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3)으로 △금상, 읍 지역 건축허가 대상 완화, △은상,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완화, △동상, 장애인 전용주차장 임산부 허용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농지 임대차 신고 간소화, △긴급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신고기간 연장, △산부인과 산후조리비용 의료보험 적용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공모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100세 인생 건강식단' 제공

시범 경로당 10개소 선정… 교육 · 실습과 균형 식단 제공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를 맞아 '백세인생 건강식단'을 제공,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8% (2017. 1월말 기준)이며 이 중 독거노인이 23.7%이다.

어르신들의 취약한 영양섭취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마을 공동 급식 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100세 인생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0세 인생 영양관리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시기(농한기)에 맞춰 장계면 대표 경로당을 비롯한 시범 경로당 10개소를 선정, 급식 도우미(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한 조리방법 등을 실습하고 노년기에 맞는 균형 식단을 제공하며 식품군을 지원한다.

또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공동급식의 증가에 따라 시범 경로당 외에도 7개 읍·면 경로당 급식 도우미에 대한 영양, 위생 등 교육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년기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양질의 체계적인 급식 문화정착이 기대되며, 건강도시 행복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주군, 아파트 현장 활동가 '양성'

지역 4개 권역서 79곳 아파트 공동체 현장활동 지원

완주군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현장 활동가를 양성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아파트 현장 활동가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촉매자를 말한다.

단지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핵심 리더를 발굴해 공동체를 구성·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동체의 재능을 지역에 나누도록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체와 지역을 연계하는 연결고리도 맡게 된다.

완주군은 이달 24일까지 2주간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서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의 이해, 갈등관리, 활동가의 역할,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사업의 회계정산, 권역별 활동사례 등 총 11차례 양성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월 2017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선발된 6명의 아파트 현장 활동가는 앞으로 양성과정 수료 후 79곳의 아파트 공동체 활동 현장을 누비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찬준 공동체활력과장은 "이번 현장 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향후 현장 활동가들을 통해 아파트공동체가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역 소식통

렛츠런파크 장수군 직거래 행사

장수군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마공원(렛츠런파크) 특설 판매장에서 최근 수도권 시민들을 상대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인 사과, 오미자, 홍삼, 장류 등을 비롯해 2017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전통주 부문 대상)을 차지한 장수 오미자주 시음·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생산농가의 판로 제공 및 도시민의 구매 기회 확대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도모를 위해 한국마사회와 장수군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관내 9개 농가(업체)가 참여, 직접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특산물을 시중대비 10~20% 저렴하게 판매한 결과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도로변 노면정비 나서

무주군이 지방도 49선을 비롯한 4개 노선과 군도 4개 노선 등 6개 읍면 8개 노선에 대한 도로변 노면정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읍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안성면은 20일부터 4월 7일까지, 부남면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설천면에서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풍면에서는 5월 11월부터 24일까지, 적상면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보호 위해 유독물질 수송차량 단속 · 홍보

진안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독물질 수송차량 단속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용담호 통행제한도로 운영은 상수원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농약, 유독물질 등 수송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용담호는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지방 795호, 군도 22호선)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